

목장교재 목자 지침서

<택함의 축복>

4/28(주일) 예배

다니엘 12:3

1.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또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흥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책임져 주심을 절실히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앞에는 흥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 왔지만,
모세가 두려워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예정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18년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서
술한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기에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나온 인생 길을 돌아볼 때,
흥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이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목자가 먼저 나눔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우리 교회가 창립된지 18 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경험했던 은혜, 또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 주일예배는 우리 교회 창립 18주년 감사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각자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어떠했는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받았던 은혜,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